# 연화장세계

제26호
2015년 8월

연화세계 우) 477-824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150번길 7 (행현리 388)
Tel 031)585-5108
fax 031)584-5108

홈페이지: www.yeonkkot.com 발행・편집: 심정명 / 이메일: yeon9@hanmail.net

## 알림마당 새 소식

■ 제10회 연꽃축제 행사 식순 사회 :이해진(혜문)

● 제 1부 - 개막행사 : 11:00

다도시연, 꽃공양시연, 육법공양, 연화무(정의순 외)

● 제 2부 - 연꽃행사 : 12:00

개식선언 /삼귀의 /반야심경 /인사말(승원 큰스님)

환영사(정명스님)/ 축사(내외귀빈)/ 축가(연화합창단)

축시(지원스님, 김천우)/ 발원문(신도회장 김명진)

● 제 3부 - 우리모두 함께하는 흥겨운 마당

바라무/ 살풀이춤/ 가수 야운 /아다지오 앙상블 /경기민요

선재들의 야단법석 / 하모니카(한상열)/ 섹소폰(이용만)

■ 전시 외 체험

전통지화전/ 연꽃사진전/ 연채식요리전/ 지화만들기체험

## 법 어 연등회 지화장엄전을 회상하며

### 연꽃처럼 늘 맑고 청정하게

귀의삼보하옵고, 정명입니다.

요즘들어 세월이 찰나(刹那)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새 1년이 지나 연꽃 축제도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양으로 음으로 도움을 주신 수많은 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16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와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無遮大會)'는 매우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연등회 장엄도감으로서 저 또한 행사주최의 일원으로 주요행사의 단(壇)을 장엄하였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이후 주요 매체인터뷰와 취재에도 응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신도 여러분과 주위 분들의 덕분입니다.

동국대에서 열린 어울림 마당의 아기부처님 관정수는 오대산 북대(北臺)의 물을 사용하였습니다. 관정수를 길으러 갈 때는 회원들과 33개의 호리병을 준비하였는데, 이는 불교 우주관에서 나오는 33천의 천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4면 사진 참조)

관불단을 장엄할 때는 좌우에 부채난등을 배치하고 진달래, 개나리와 같은 야생화로 꾸몄습니다. 관불단 위에는 산개(傘蓋)를 놓고, 단 위에는 반(盤 물담는 그릇)과 연꽃 일곱송이(부처팀 탄생시 일곱 걸음을 상징) 그리고 구룡(九龍 탄생시 아홉 마리 용이 물을 뿌린데서 유래)과 탄생불을 모셨습니다.(4면 사진참조)

매번 하는 행사이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등회도 무형문화재인만큼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우리나라 문화에 일조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18일 KBS 9시 뉴스에서는 연등의 아름다움과 지화가 소개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요즘 형형색색의 연등이 사찰과 거리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사라져가는 전통 연등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둠 속에서 환하게 세상을 밝혀주는 연등. 천 년을 넘게 이어져 내려온 연등 행사는 민간에선 복을 기원하는 세시풍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연등회는 인산인해를 이뤘고,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도 마을을 붉게 수놓은 연등 놀이는 성행했습니다. 사찰에선 지금도 부처의 가르침을 밝힌다는 뜻으로 연꽃 등이 많이 걸립니다. 한지에 천연 염료를 알록달록 물들이고, 정성스레 접으면 연꽃이 피어납니다. 인쇄된 색지로 만든 요즘 연등과는 달리 은은한 색이 멋스러운 종이꽃(紙花) 등은 일제 강점기 이후 사라졌다가 최근 복원됐습니다.

<인터뷰> 정명(스님):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 몸으로 정성으로 만들어서 (부처님께) 올리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장대 끝에 연등을 주렁주렁 매단 등간(燈竿)도 맥이 끊겼다가 최근 되살렸습니다. 통일신라 이후 민가에선 가족 수 만큼 등을 달아 풍요와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인터뷰> 백창호(한국전통등연구원장): "단순히 밝아서 좋은 게 아니라 등에서 비춰 나오는 따뜻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되살아난 전통의 멋이 어둠 속 연등의 향연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연등회와 지화장엄전을 회상하면서 모든 분들이 늘 연꽃처럼 맑고 청정하기를 기원합니다.

## ■ 칠석 기도 : 8월 20일 (음 7.7)

칠석은 불가의 고유명절입니다. 치성광여래부처님께 지극정성 가내태평, 액난소멸, 자손의 수명과 복,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날입니다. 민족전통을 불교행사로 되살린 칠석기도에 많은 동참하시어 소원하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8월20일 (음력 7월7일) 오전 10시
- 장 소 : 연화세계 법당
- 공양 올리실 분 : 생미, 과일, 떡, 꽃
- 기도비 : 2만원

## ■ 3일 백중 조상천도기도: 8월 26일~28일 (음 7월 13~15일)

음력 7월 15일은 백중, 우란분재일입니다. 이날은 백가지 과일과 음식으로 대덕스님들을 공양하고 여러 부처님께 부모님의 공덕을 회향함으로서 수많은 인연영가를 천도하는 날입니다.

백중 조상천도기도에 동참하시어 조상님을 비롯한 인연 영가 뿐 아니라 허공계를 떠돌고 있는 영가를 제도하여 크나큰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공양 올리실 분 : 생미, 과일, 떡, 꽃)

- 일 시 : 8월 26일~28일 오전 10시
- 장 소 : 연화세계 법당
- 기도비 : 3만원 / 영가종이옷 : 1인 3천원

## ■ 심우승 거사 연꽃축제 넋춤 시연예정

심우승 거사께서 이번 제10회 연꽃축제에서 넋춤을 추기로 하였습니다. 심우승 거사는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만봉스님으로부터 넋춤을 전수받았습니다. 심거사는 천도재에서 종이로 만드는 '전'이 넋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연화세계 지화박물관 설립 계획

연화세계는 대구대 명예교수이신 김태연 교수의 박물관을 계승하여 향후 가평 연화세계에 지화박물관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김태연 교수는 불교지화, 무속지화, 궁중상화 등 각종 지화를 연구하신 분으로 관련 논문을 14편 발표한 바 있으며, 경북 영천의 개인 박물관에 200여 점의 지화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김교수는 연화세계 정명스님에게 소장된 자료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정명스님도 가평에 지화박물관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 ■ 정명스님 KBS 2TV 생방송 '아침' 출연

정명스님은 지난 5월25일 아침 7시 KBS 2TV 생방송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불교지화를 널리 알렸습니다.

스님은 "지화는 예부터 불교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 중에 하나로 수륙재나 영산재 등 불교의례는 물론 법당에서도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전통문화유산"임을 밝히고 30년동안 꽃을 연구하게 된 이력, 지화를 만드는 과정도 소개하였습니다.

| 쉼 터 |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 연등회 사진 (5.16~17) |
|---|---|